

8/9
2020

은혜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생기야 불어오라”

KEEP YOUR FIRE BURNING

1부 중보기도 : 목회 2팀 (7:30am~8:30am)

2부 중보기도: 에스터 권사회 (9:20am~10:20am)

3부 중보기도: 중보기도팀 (11:30am~13:00pm)

4부 중보기도: 청년부팀 (2:00pm~3:30pm)

“신앙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라”

[엡 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 5:19] 성령을 소멸치 말며

† 주일예배를 위한 기도

“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 [시 28:6]

- 1)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 2)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3) 가정이 성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가족 예배 공동체가 건강하고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 4) 부흥을 베푸시는 주님! 소멸되어져 가는 심령마다 성령의 불로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묶였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성령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5)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갈급한 심령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 새생명 얻게 하옵소서!
- 6) **모든 중보기도자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예배 순서 마다 충만한 은혜로 임재해 주옵소서!**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부: 권상욱목사, 2 & 3부: 김대규목사)

“ 나의 허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 [시 35:28]

- 1) 주의 영을 부으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 2) 찬양팀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 영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 3)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찬양이지만, 전심으로 찬양 드릴 때, 마음의 근심과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옵시고 기쁨과 평안의 은혜가 각 가정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 4)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해 올려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 5)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온전히 갖춰지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설성훈목사, 권상욱목사, 김동철목사)

- 사회 담당 목회자를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3. 대표 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한상혁장로, 채수전장로, 박기서장로)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회중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 성령께서 도우사, 하늘보좌를 흔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A. 담임 한기홍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경을 교독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성도들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 1)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부으시고,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불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소망이 끊어진 세대를 다시 살리고 생명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 제단 되게 하옵소서.
- 2) **”신앙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라”**의 말씀을 통해, 꺼져가던 심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심령을 찢고 통회 자복하게 하셔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 3)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치유와 회복 그리고 믿는 자의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 같이 힘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대 회복과 눈을 보호해 주시도록 중보해 주십시오)
- 4) 말씀이 선포 될 때, 어둠의 권세가 모두 떠나가게 하옵소서! 교만과 우상숭배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세계 선교 마무리에 목숨을 다해 감당하는 은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 일천번제 새벽기도 (4/10/2021 까지)
전교인 성경 다독 읽기 (7/27-11/30)

JAMA 중보기도 컨퍼런스(8/17-29): “JAMA 교회를 위한 새벽 대각성 집회”

주제: “주여, 교회가 다시 부흥으로 타오르게 하소서(행 2:42-27)

B.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1) 온라인 예배를 축복합니다.
준비된 예배, 헌신하는 예배, 결단하는 예배, 성령 충만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2)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갈5: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었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 3) 설교시간에 어두운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공간의 분위기가 안정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 4)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눅12:49] 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불을 심령마다, 가정마다 던져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성전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C.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1)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3) 설교자의 말이 아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4)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5) 회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용사 같이 일어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6) 위로, 치유, 소망, 용기, 자유를 누리고 나누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미디어 팀을 축복하시고 음향과 영상 관리자들이 섬세한 섬김을 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시스템, 음향과 조명 등 모든 기계의 성능이 제대로 작동 되게 하옵시고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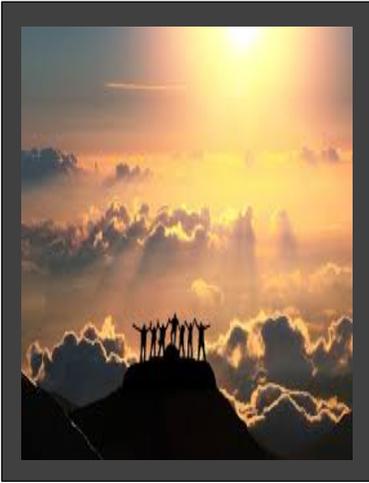
5. 헌금시간을 위한 기도

-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a)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 b)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옵소서.
 - c) 복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 d) 드리고 싶으나 드릴 물질이 없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지게 하옵소서.
 - e) 드리는 예물이 복음을 위해 귀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 f)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체험하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 모든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리라 결단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모든 성도와 그 가정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7. 예배 이후를 위한 기도 [다음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위한 기도]



- 1)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 2) **일천번제 새벽기도, 큐티, 말씀통독**을 통해,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 3) **새로운 다짐과 각오, 헌신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4) **모든 불신앙의 자세가 소멸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 5) 불이 꺼지지 않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 EM /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 1)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속에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 2)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역사와 사회와 교회와 문화 속에 파워있는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3)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 게임중독, 정신적인 연약함과 아픔, 자살 음란에서 떠나게 하시고,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생명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게 하옵소서.
- 4) (다음주부터 플러튼 지역에 있는 대개의 학교가 개학을 하고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새 학년으로 올라가는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온라인 학업을 통해서도 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5) 초중고 모든 학교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일학교가 없는 곳에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믿음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사회 곳곳에 세워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 교회 환우들과 Jesus Light을 위한 기도

- 1) 연약할 때일수록, 예배를 사모하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 2)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주께서 위로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 3) 연약한 성도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 4)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에게 성경의 바람이 불어와 영안이 열리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 5) Jesus Light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나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사랑받으며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 1)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 성령충만하게 하옵시며, 끝까지 세계 선교를 강건하게 감당하시도록 지켜 주옵소서. **[한국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2)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과 뜻을 다하게 하시고 풍성한 확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 3)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환경적인 필요, 재정적인 필요를 공급해주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맡은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GMI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질병과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2.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선교 정책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혔던 선교와 현지 사역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새로운 방법과 방향으로 열려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3. 선교사님들이 세운 현지 교회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4. 신학교들이 다시 운영되게 하옵시고 비대면 사역들도 잘 준비 되게 하옵소서.

GMI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금주의 기도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 8:17]

많은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비자와 재입국 절차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학업 관련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동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COVID 19 감염
치료와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강형민 선교사님(브스쿠)은 조금씩 호전 중. 성도 25 명의 완쾌를 위해
- 김로만 목사님 부부(타쉬켄트)- 5 명의 자녀까지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중
- 이길원 목사님 부부(사할린)- 폐렴도 치료되고 코로나도 음성 판정을 받음
- 김봉년 선교사님 교회(예카테린) 사역자 4 명과 성도 한 명
- 정소남 선교사님 교회(하바롭스크) 성도들은 다 완치 후 퇴원하였습니다!

병환중이신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 A 국 이에신 선교사님 항암치료
- T 국 이해영 선교사님 항암치료
-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님 항암치료
- 캄보디아 이선표 선교사님 심장 건강
- 유 00(H 국) : 항암치료
- A 국 오 호드 선교사님 항암과 골수이식 진단
- 케냐 강영순 선교사님 류마티스 자가 면역 결핍증 통증

사역을 위한 기도

- 김성민 선교사님(사할린): 1 기 신학생들 3 개월 사역 훈련을 온전히 마치도록
- 김운용 선교사님(파푸아뉴기니) : 성경번역 사역과 협력을 위하여
- 최지섭 선교사님(T 국) : 배 00 듀즈 평안교회와 청소년들을 지도할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성도들을 지켜주시도록

미국을 위한 기도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5 millions, 사망자가 16 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대규모로 감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새 학기도 distance learning / at home learning 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문을 열었던 교회들도 다시 닫혀지고 온라인 예배로 계속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영적 열정이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자들은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비상한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1. 하나님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와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해주옵소서. 이 나라가 교만함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긍휼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2. 하나님여,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소중한 교회를 깨우시고 살리소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3. 하나님여, 이 땅의 경제를 살리소서. 정부와 인간의 노력과 지식으로 이 경제를 살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일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하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4. 하나님여,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소서. 학교들이 학교내 수업을 포기함으로 자녀의 교육과 과외활동에 부모가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등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같은 시기에 모든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삶의 본이 되며,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5. 하나님여, 대통령 이하 국가적 리더들과 주, 카운티, 도시 리더들이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11 월 선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되돌리려는 열정을 가진 리더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COVID-19

미국 확진자 : 509 만 / 사망자 : 16 만 4 천
CA 확진자: 55 만 / OC 확진자: 38,700 / OC 사망자: 697

[엡 6:10~12]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고후 10: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롬 8: 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벧전 5:8~9]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번 주간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 흑암의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염병 때문에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전 세계는 기근과 전쟁과 태풍과 홍수, 폭발사고 등 많은 재난을 당하며 힘든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심한 가운데 지진으로 산불로 불안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지구상에는 어떤 곳도 안전한 지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사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라디오 방송도 채널이 많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을 들으려면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추어야 들을 수 있지 채널이 정확하지 않으면 잡음이 심하게 들립니다. 잘 듣고 싶은데 잡음이 심하면 짜증나고 답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세상소리로 잡음이 심하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세상의 잡음이 없어지고 말씀이 들려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내일 일에 대해 불투명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요즘처럼 장기간 초긴장하면서 사역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앞드리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평강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찬양을 날마다 부르며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입니다. 우리교회는 내년 4월 10일까지 일천번제
새벽기도를 하면서 코로나 펜데믹이 소멸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일천번제 새벽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읽기를 부지런히 하시며 바이블타임으로 말씀묵상하시고
일천번제 새벽기도를 하시면서 성경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며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놀라운 응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 목사 드림



셋째 말씀에 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복지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해진 자'이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는 '충성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바로 '말씀에 거한 자'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수 1:7)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기 위하여는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의 축복은 조건부 축복입니다. 무조건하고 축복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1-14 절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축복하지 않느냐고 하면 안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시편 말씀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워야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척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것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30)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을 안하니까 힘든 것이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것처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 은혜 받고 목사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만약 목사가 된다면”하고 생각했을 때 앞길이 환하게 느껴지면서, 목사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삶이 오히려 한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이란 말고 보면 쉬운 것입니다. 말씀도 그대로 살려고 작정을 해 버리면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빛 되신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는 자기의 발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자신의 한 발자국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영원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길을 확실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믿은 자에게 인생 길의 결국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도록 이끄는 십자가의 삶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므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과 같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중
김광신 목사 드림.



사랑을 깨달아 알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장 19절]

바울은 '깨닫게' 하시길 성령님께 구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깨닫다'라는 동사는 본시 '씨름하다'라는 뜻이며 더러 싸움을 벌여 성읍을 점령한다는 개념으로 '차지하다'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결국 누군가에게 덤벼들어 힘으로 누르고 땅바닥에 쓰러트려 제압하는 걸 가리킨다.

바울은 그 실체를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랑에 압도됐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깊이 묵상하고 곱씹으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부여 주시는 은총에 힘입어야 한다.

19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어째서 바울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열거해 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곱씹히 생각해 보라고 했을까?

a.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을까?

• 사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b.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 요 10장 14-15절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 빌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c.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깊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리스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깊고 깊은 구렁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는지 알아야 한다.

• 막 15장 34절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이 내려간 곳은 지옥이었다.

d.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높다.

• 요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 요일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팀 켈러 '기도' 중에서

기도만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בל리 그레함은 '부흥의 비결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과 교회, 가정과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은 계속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샬롬!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World Prayer Center

기도지 제작 : 은혜 한인교회 중보기도국
문의 : gracewpc.com